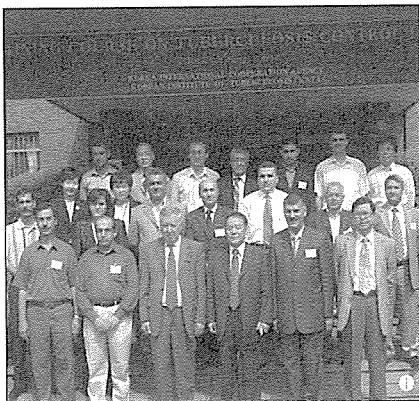


2006 이라크 아르빌 결핵관리요원 특별 연수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연구원은 전후 결핵 등 전염병의 발생과 영유아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우리군 파병지역)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이 지역의 결핵관리체계 복구에 필요한 보건으로 인력에 대해 결핵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관리방법 등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이라크 아르빌지역 결핵관리 의사 및 간호사 15명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 결핵 예방 및 치료관리, 보건교육, WHO 결핵정책방향 등의 이론 강의, 실습 견학, 토론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대한결핵협회장 외 협회 관계자 7명과 일본결핵연구소장, 국제항결핵연맹 전문위원 등이 강사로 참석했으며, 세브란스병원, 국립마산병원, 부산시보건소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연수를 마친 이라크 관계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붕괴된 이라크 결핵관리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재건 및 세계 결핵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① 결핵연구원에서 기념촬영.
- ② 이라크 아르빌지역 결핵관리 의사 및 간호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다.
- ③ 이라크 의사협회 DR.Dashy 회장이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유진벨 재단 북한방문, 북한 결핵퇴치 지원

현재 북한의 가장 심각한 전염병인 결핵을 퇴치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해오고 있는 유진벨재단(대표, 스테판 린튼)은 지난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북한 평안남도과 남포시 소재 19개 의료기관을 방문, 안주시 결핵요양소, 남포시 결핵예방원 등의 결핵의료시설에 결핵약 10,850명분, 초음파와 심전도기계, 수술장비 등 11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하였다.

유진벨 재단은 1995년 창설되어 기독교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에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앞으로도 결핵과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도움으로써 미래의 건강한 통일 한국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① 유진벨재단에서 지원한 이동 X-ray 검진차 밖에서 결핵 진단을 받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북한 학생들.
- ② 평남소아병원의 어린이 환자병실을 찾은 유진벨재단 린튼 회장.
- ③ 결핵진단 X-ray 촬영 중인 북한 학생.
- ④ 각 의료기관에 전달한 비타민과 북한 의사.

